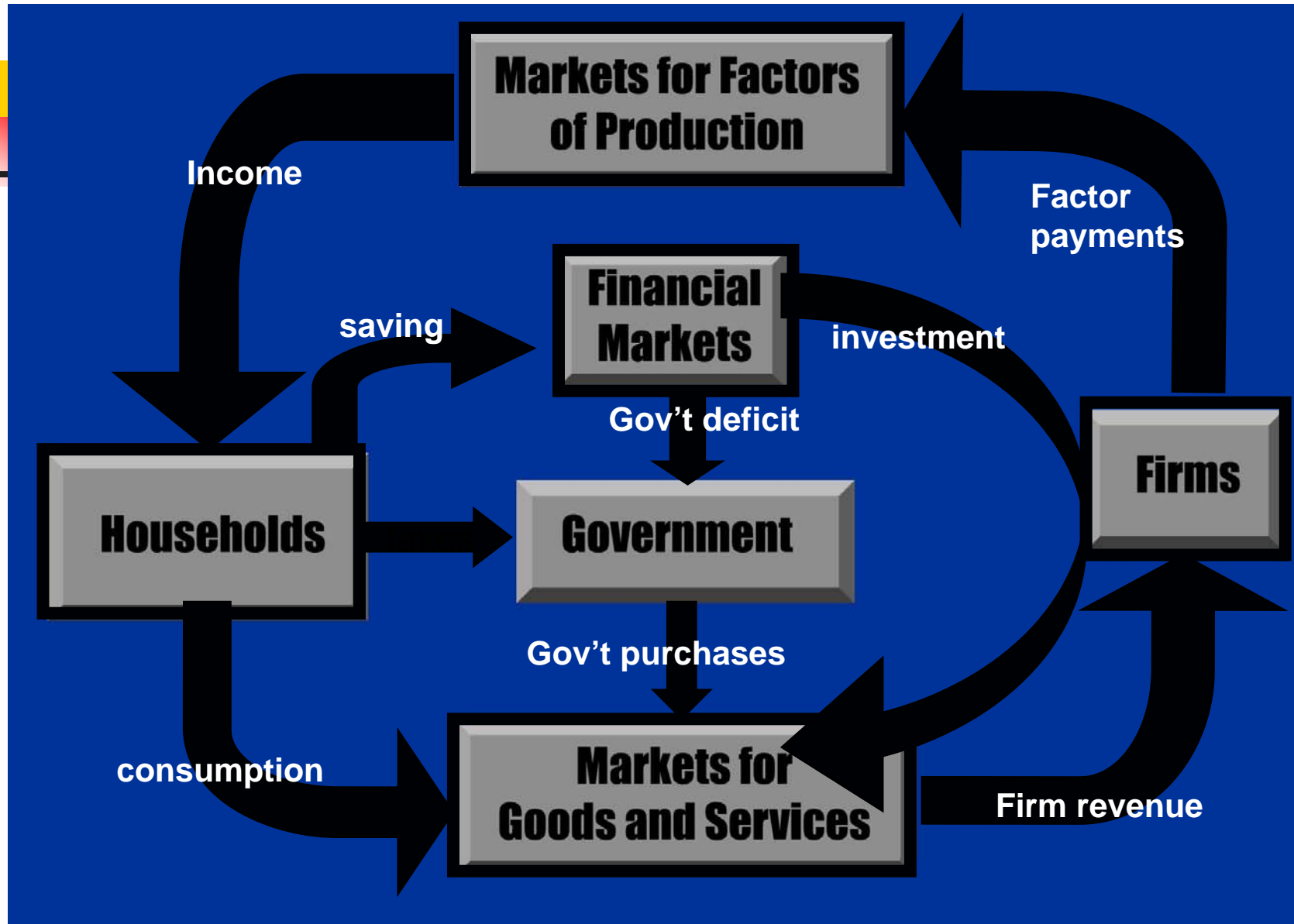




거시경제학

이 태정

거시경제의 흐름도





1. 거시경제학의 3가지 기본원리

- 한 국민경제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경제의 생산성이다.
 - 생산성의 결정요인: 물적 자본, 인적 자본, 기술, 천연자원
-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증가율이다.
 - 화폐수량설: $M \cdot V = P \cdot Y$
 - 화폐의 중립성, 고전학파적 2분법
-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상충관계가 있다.
 - Phillips Curve
 -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기변동



2. 거시경제 관련지표

- 세 가지 기본지표(GDP, 물가, 실업률)의 측정방식과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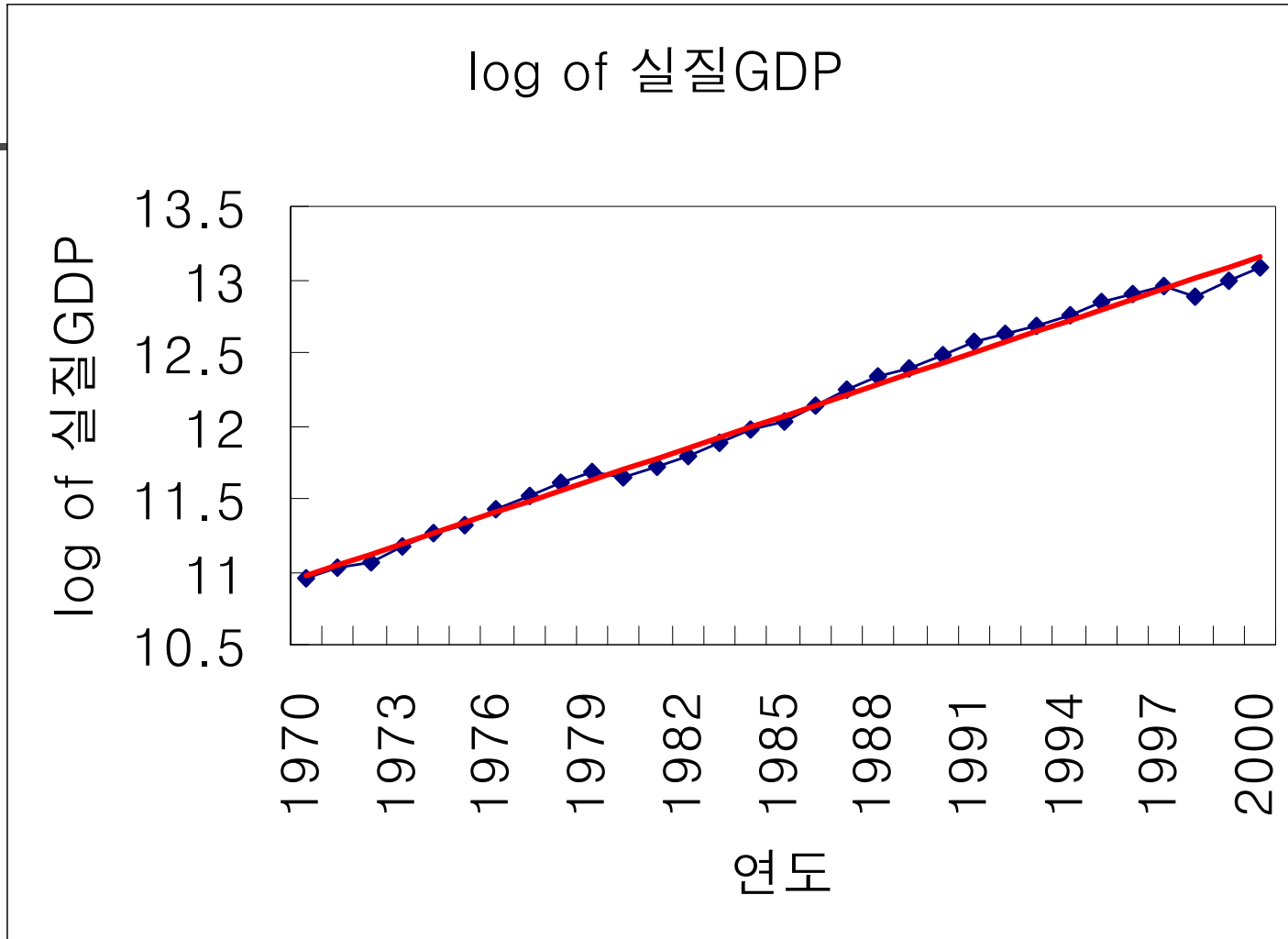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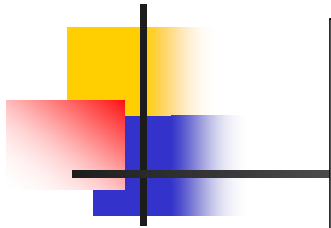
1) GD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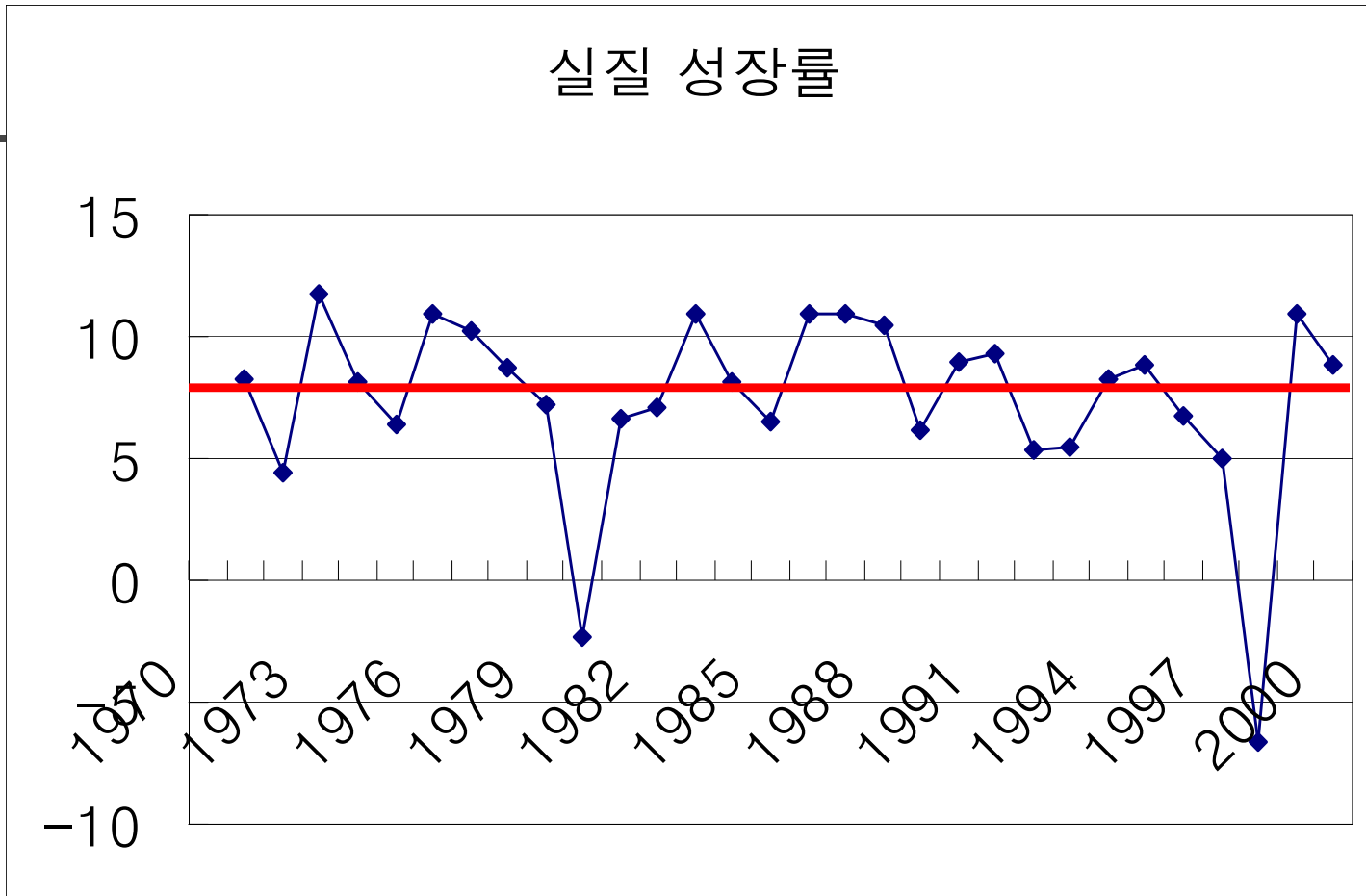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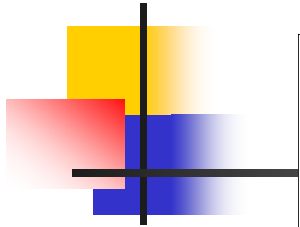
- GDP의 정의: 일정기간동안 한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시장가치
 - 일정기간: 월별, 분기별, 연간
 - 국민경제 내: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
 - 최종재: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중간재로 쓰인 재화의 가치는 제외
 - 시장가치: 수 많은 최종재의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의 단위로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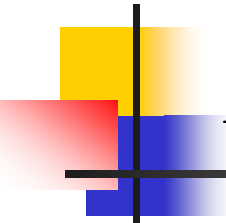


1) GDP (계속)

- 명목GDP와 실질GDP
 - 화폐의 가치의 변화에 따른 GDP의 변동분을 조정해야 한다.
 - 해결방법: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각 해에 생산된 최종재의 가치를 평가
- 후생지표로서의 GDP의 문제점
 - 시장의 범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.
 - 여가의 가치를 고려하진 않는다.
 - 생활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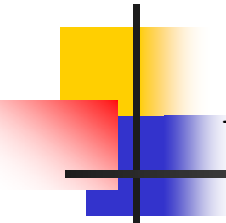






1) GDP (계속): GDP의 구성

- 생산면의 GDP: 경제활동별(산업별) GDP
 -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계
- 지출면의 GDP: 사용용도별 GDP
 - 민간소비+투자+정부소비지출+순수출
- 분배면의 GDP: 귀속주체별 GDP
 - 피용자보수+ 영업잉여+ 고정자본소모+순간접세



1) GDP (계속): 연관 지표

- GNP: 한 국민경제의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재 가치의 합
- $GNI = GDP + \text{국외순수취요소소득}$
- $NNI = GNI - \text{고정자본소모}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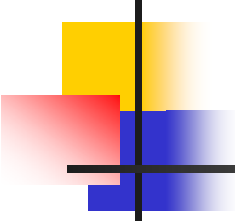
2) 물가

- 물가지수의 종류

- GDP deflator
- 소비자물가지수 (CPI: Consumer Price Index)
- 생산자물가지수 (PPI: Producer Price Index)

- 측정방식

- $\text{GDP deflator} = (\text{명목 GDP} \div \text{실질 GDP}) \times 100$
- $\text{소비자물가지수} = (\text{당년도 생계비} \div \text{기준년도 생계비}) \times 100$
 - 생계비 = 생계에 필요한 기초 품목 (생필품)을 일정량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
 - 한국의 기초생필품구조: 509개 품목 (음식료품 30.2%, 주거 14.8%, 광열 수도 4.1%, 의복신발 8.2%, 교육 교양 오락 16.0%)
 - 36개 주요도시지역 소매가격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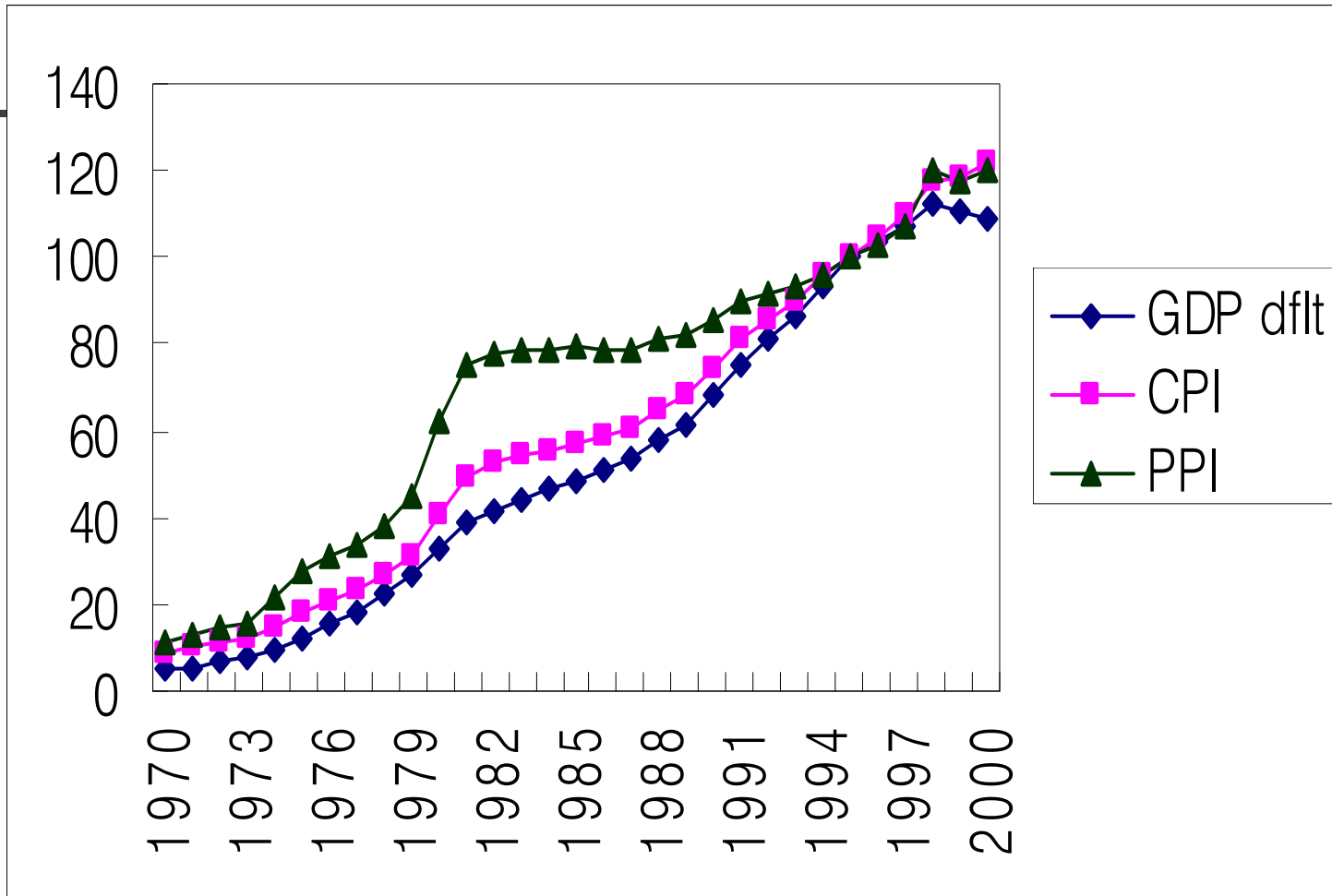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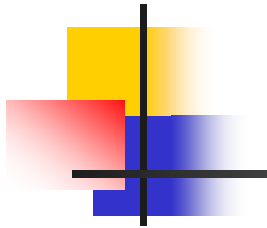
2) 물가 (계속)

■ 측정방식 (계속)

- 생산자물가지수
= (당년도 국내생산출하액 ÷ 기준년도 국내생산출하액) × 100
 - 조사대상: 949개 품목 (농림수산물 6.6%, 광산품 0.4%, 공산품 66.5%, 전력 수도 도시가스 0.3%, 서비스 23.2%)
 - 16개 도시지역, 생산자(공장도)가격 또는 수입업자 판매가격조사

■ 물가지수의 문제점

- GDP deflator: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만 고려하므로 체감물가와 괴리
- 소비자물가지수: 생필품의 품목과 구성의 경직성으로 계층별, 연령별 체감물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. 제품의 질적 향상을 반영하지 못함.





3)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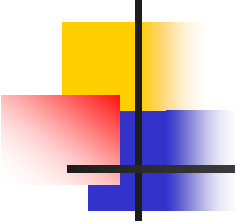
- 측정방식

- $\text{실업률} = (\text{실업자 수} \div \text{경제활동인구}) \times 100$

- 경제활동인구: 15세 이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인구
 - 취업자 (ILO 기준): 주당 1시간이상 유급노동 또는 주당 18시간이상 무급가족노동
 - 실업자: 경제활동인구 - 취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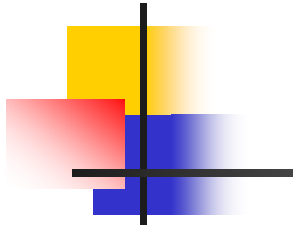
- 실업률의 문제점

-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가 모호: 낙심한 잠재적 경제활동인구(discouraged potential labor force)의 문제
 - 취업자의 정의가 너무 관대: 위장실업 (disguised unemployment), 불완전고용 (underemployment)의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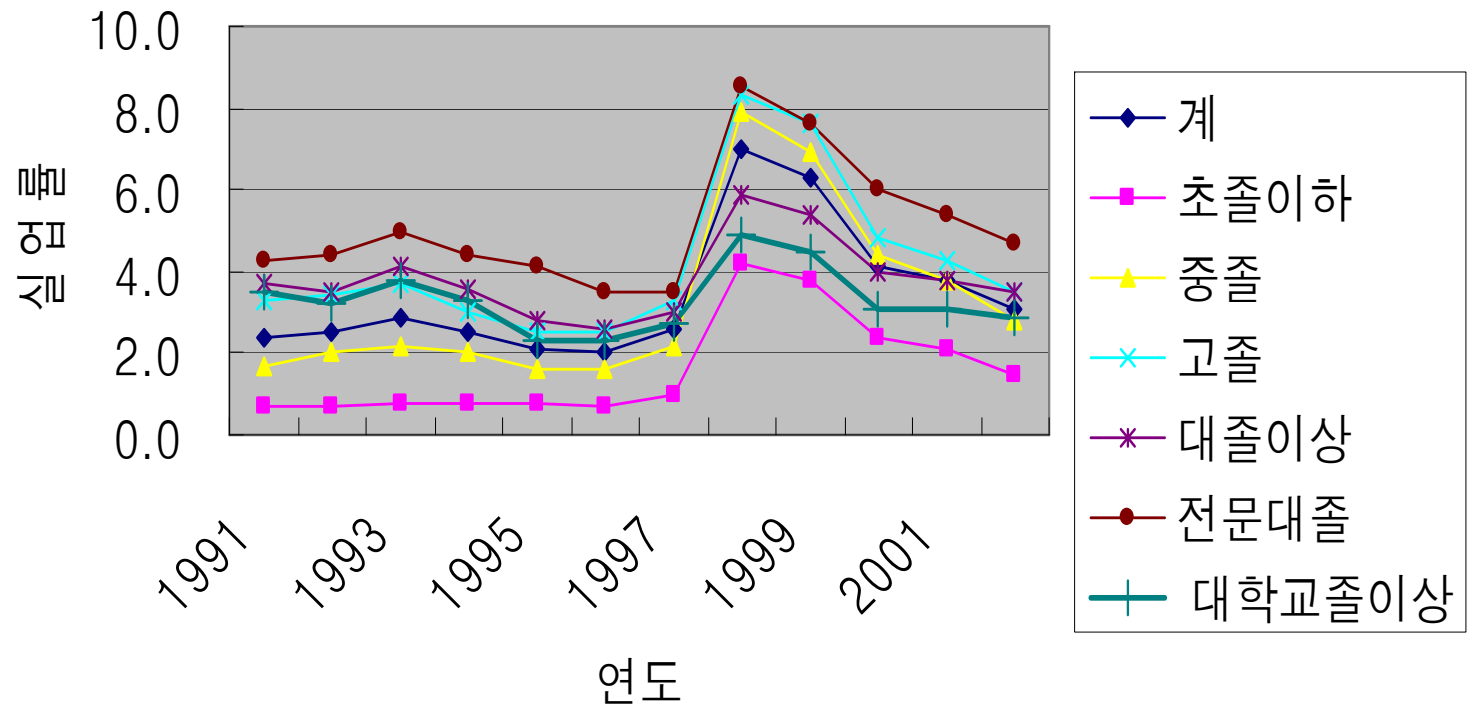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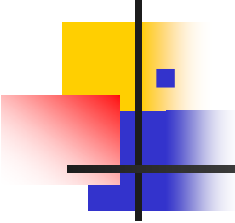
3) 실업률 (계속)

- 자연실업률: 장기평균실업률 (10 년 이상의 기간동안의 평균)
 - 완전고용상태: 실업률 = 자연실업률
 - 노동시장의 균형 \Rightarrow 실업률 = 0%
 - 자연실업률 $\neq 0 \Rightarrow$ 노동시장의 장기적 불균형
 - 자연실업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
 - 마찰적 요인:
 - 정보의 불완전성, 구직자와 일자리의 mismatch
 - 구직행위의 강도 (사회보장의 정도)
 - 구조적 요인:
 - 최저임금제
 - 노동조합
 - 효율임금 (efficiency wage)



학력별 연간 실업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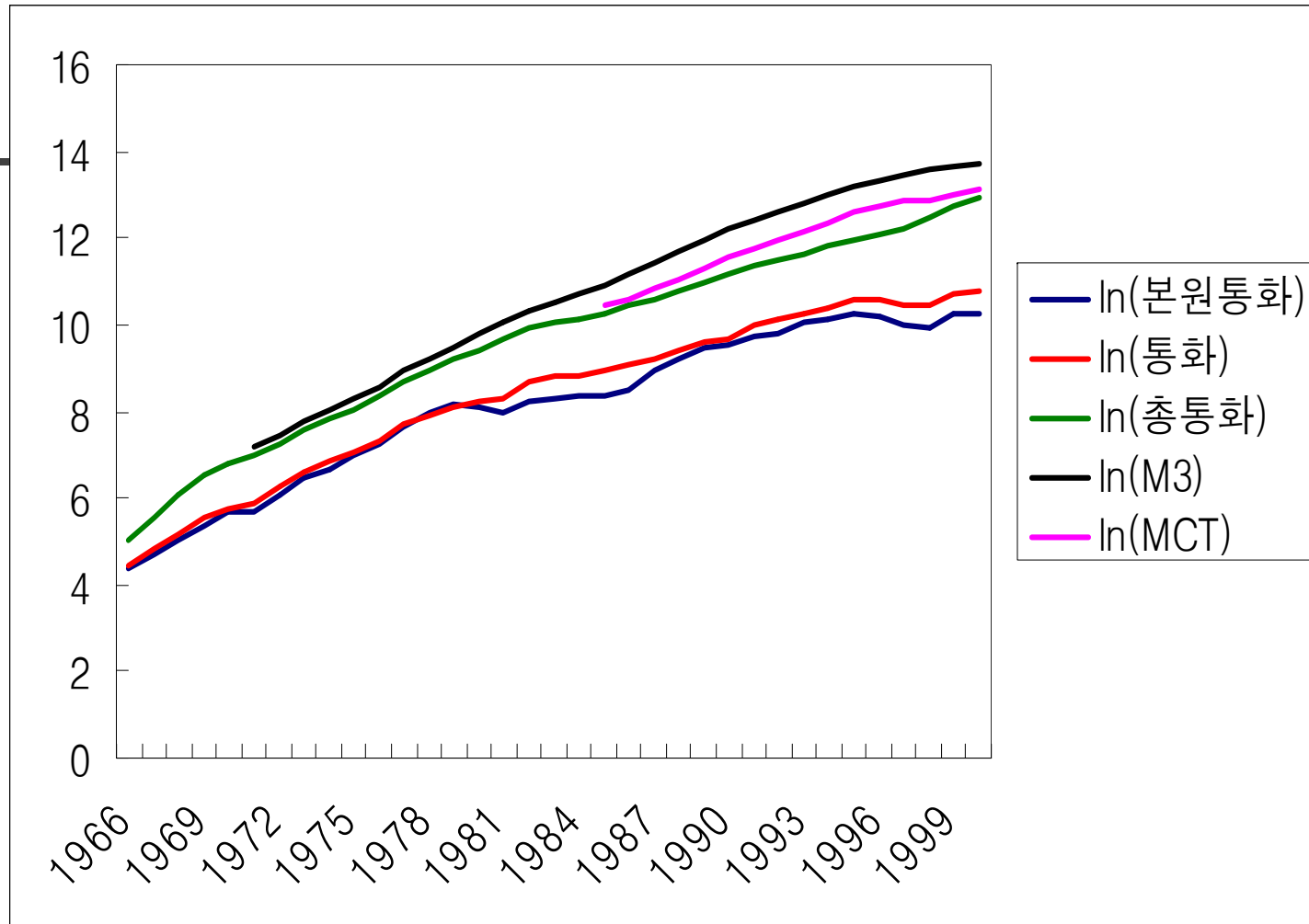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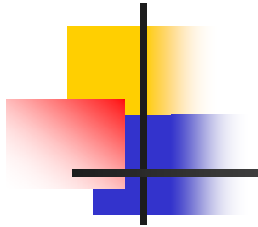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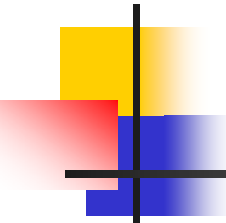


통화/금융시장

1) 통화량(통화지표): 어떤 금융자산을 “돈”으로 볼 것인가?

- 기준: 직접적인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한 자산
 - 현금통화: 민간의 현금보유액
 - M1 (통화): 현금+요구불예금
 - M2 (총통화): M1 + 저축성예금 + 거주자 외환예금 (1979-1997)
 - MCT: M1 + 은행발행 CD + 금전신탁 (1997)
 - M3 (총유동성): M2 + 각종 금융기관 발행 CD, 어음, RP(1998-현재)
- 신용창출: 일반은행의 예금수신 및 대출여신 업무과정에서 창출되는 통화
 - 예: $M1 = \text{화폐발행고} \times (1/[1-(1-\text{지준율})(1-\text{민간 현금보유율})])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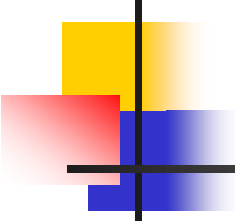


2) 통화정책의 수단

- 공개시장조작: 화폐발행고 조절 (중간목표=이자율)
- 지급준비율정책: 지급준비율 조절
- 대출정책: 총액한도 대출금리조정 (2000.5. 3%)
벌칙금리 (call + 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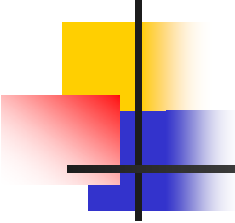
3) 금융/외환시장의 가격변수

- 이자율(금리) : 공정할인율, 콜금리, 예금금리, 대출금리,
 - 종류: 공정할인율, 콜금리, 예금금리, 대출금리, 국공채 수익률, 회사채수익률
 - 개념상의 구분:
 - 화폐가치 변동고려 여부: 명목이자율 vs. 실질이자율
 - 실제부담액 고려 여부: 표면금리 vs. 실효금리



3) 금융/외환시장의 가격변수 (계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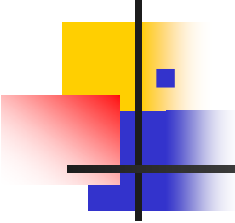
- 주식시장관련 지표: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식시장지표
 - 주가: 주식시장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식시장지표
 - 한국종합주가지수: 80.1.4.기준, 시가총액식
 - 한국주가지수200: 200개 기업대상, 90.1.3. 기준, 시가총액식
 - KOSDAQ 종합지수: 96.7.1. 기준, 시가총액식
 - 한경다우지수: 100개 기업대상, 2000.1.4 기준, 다우존스식
 - 주식거래량:
 - 상장주식회전율=당기간 중 (거래량÷평균상장주식수)×100
 - 시가총액회전율=당기간 중 (거래대금÷평균시가총액)×100
 - 주식수익률:
 - 배당수익률= (1주당 배당금÷주가)×100
 - 주가순수익비율(PER) = (주가÷1주당 법인세 공제 후 순이익)
 - 주가순자산비율(PBR) = (주가÷1주당 순자산가액)



3) 금융/외환시장의 가격변수 (계속)

- 외환시장 관련 지표: 환율

- 명목환율: 양국 화폐간의 교환비율
 - 예: 1289W/\$
 - W의 평가절하=명목환율상승, W의 평가절상=명목환율하락
- 실질환율: 명목환율에 양국의 화폐의 실질가치 변동을 반영
 - $\text{실질환율} = \text{명목환율} \times (\text{미국물가} \div \text{한국물가})$
 - Cf) Economist 지의 Big Mac Exchange Rate
- 실효환율: 자국통화와 모든 교역상대국과의 종합적인 관계를 반영한 것
- 구매력평가환율: 자국통화의 구매력과 타국통화들의 구매력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국내물가와 외국물가를 환율에 반영한 것
 - 기준시점을 정하고 기준시점의 명목환율을 구매력평가지수로 조정
 - 상품시장의 균형을 반영하는 이론적 장기균형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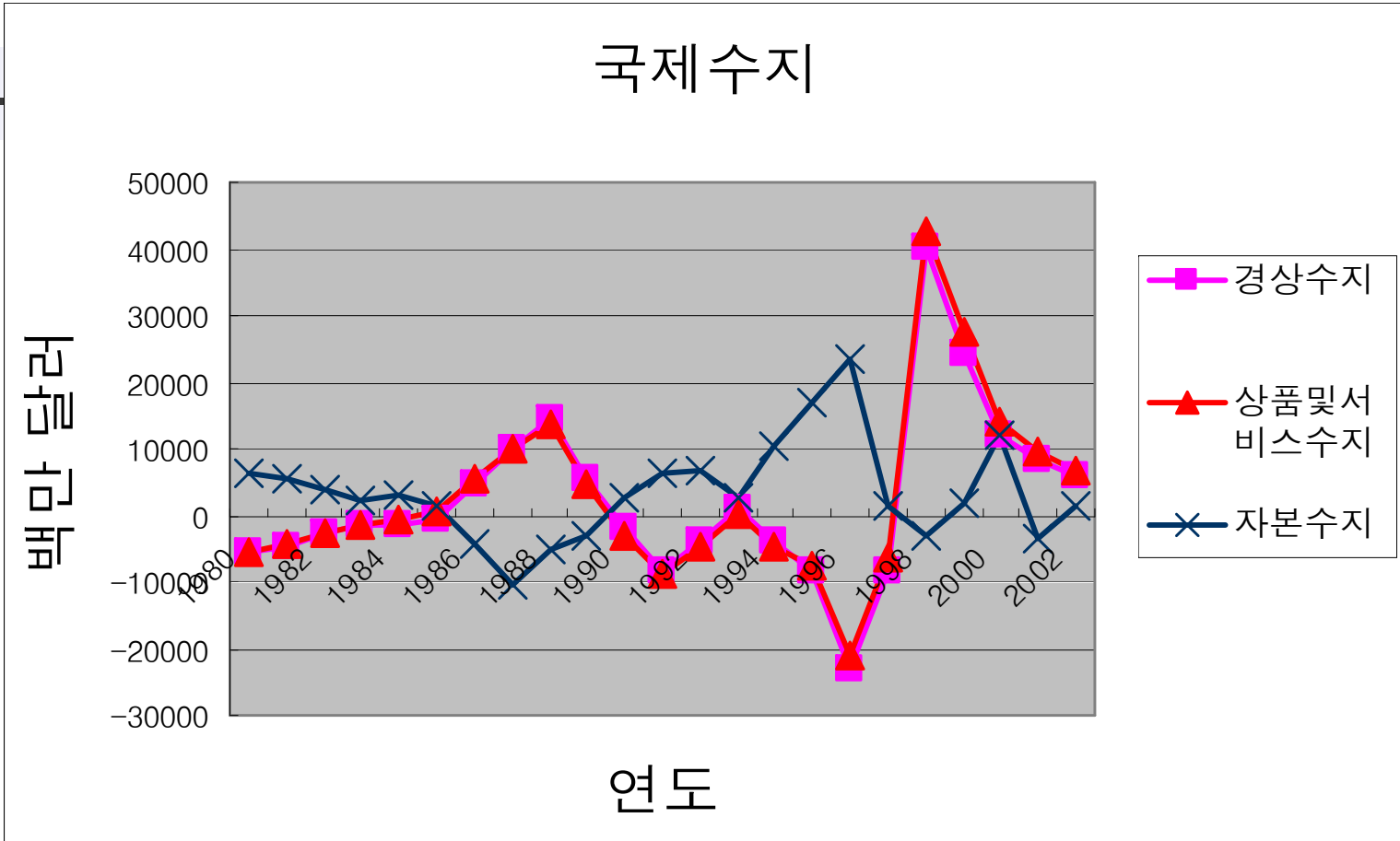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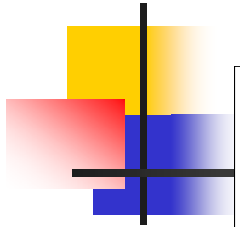


■ 국제수지

1) 국제수지의 구성 (1998년 개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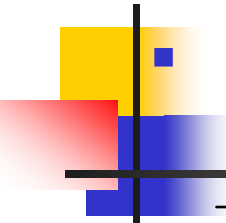
- 경상수지: 상품, 서비스의 국제간 거래와 소득 유출입에 대한 수지
 - 상품수지: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, 관세청 자료, 소유권이전 기준, FOB 가격으로 계산
 - 서비스수지: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
 - 소득수지: 급료 및 임금수지 + 투자소득수지 (배당금, 이자)
 - 경상이전수지: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은 액수의 차이

- 자본수지: 금융자산의 거래에 대한 수지
 - 직접투자: 영속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대외투자
 - 증권투자: 주식, 채권, 파생금융상품의 거래
 - 기타투자: 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거래
 - 기타 자본수지: 특허권, 상표권 등의 거래와 해외이주비



3. 주요 거시지표들 간의 관계

- GDP의 사용 용도별 구성
 - $Y = C + I + G + (X - M)$
-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
 - $Y/L = A \cdot F(K/L, H/L, N/L)$
- 이자율
 -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(Fisher Equation): $i = r + \pi$
 - 경험칙 상의 적정이자율 : $i = g + \pi$
- 환율
 - 실질환율과 명목환율: $\varepsilon = e \cdot P_{US} / P_K$
-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단기적 상충관계
 - $u = u_f - \alpha \cdot (\pi - \pi^e)$



- 장기분석 (용어 해설)

- $\text{저축} = \text{민간저축} + \text{정부저축}$

- $\text{민간저축} = \text{소득} - \text{소비지출}$, $\text{정부저축} = \text{세수} - \text{정부재정지출}$
- 실질이자율이 높을수록 저축은 늘어난다.

- (실물)투자: 기업의 생산시설의 건설, 확장, 또는 개보수

- 실질이자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투자수요는 줄어든다.

cf) 금융투자: 가계의 금융자산 구입 (저축의 수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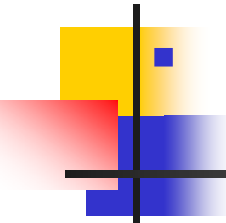
- 순해외투자 (net foreign investment)

= $\text{국내거주자의 해외투자} - \text{해외거주자의 국내투자}$

- 국내실질이자율과 국제실질이자율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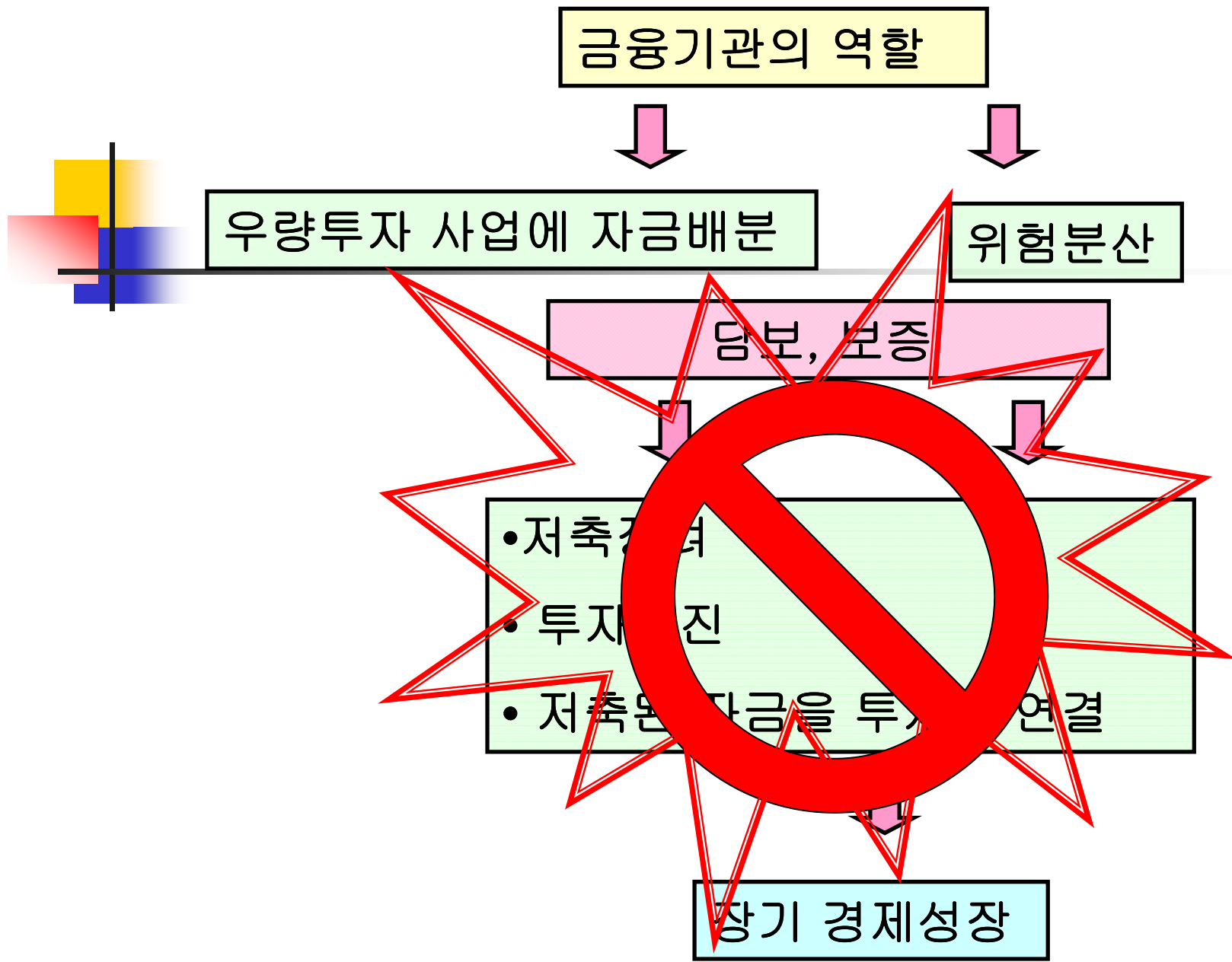
- $\text{순수출} = \text{수출} - \text{수입} (= \text{상품수지} + \text{서비스수지})$

- 순수출은 실질환율이 높을수록 늘어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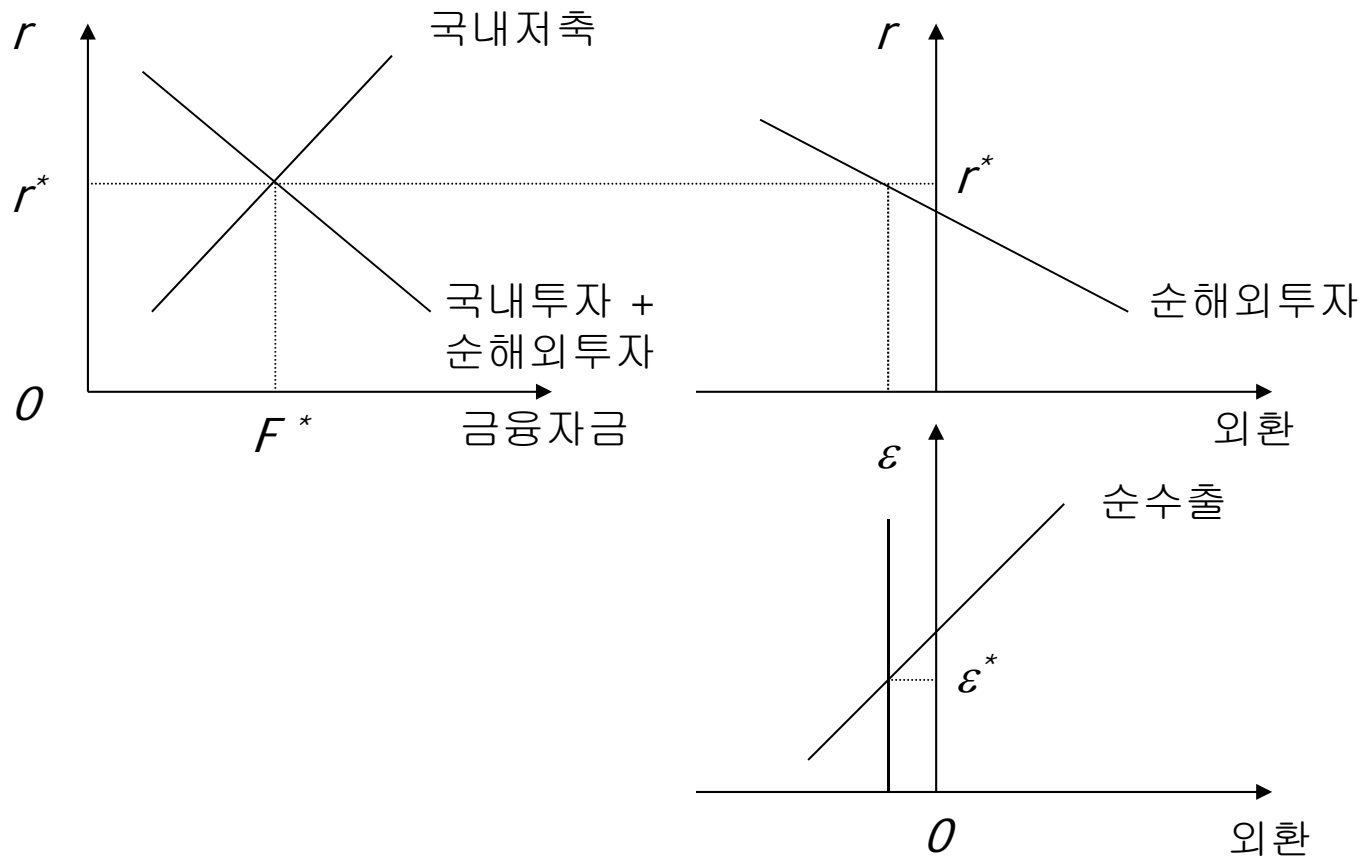


■ 장기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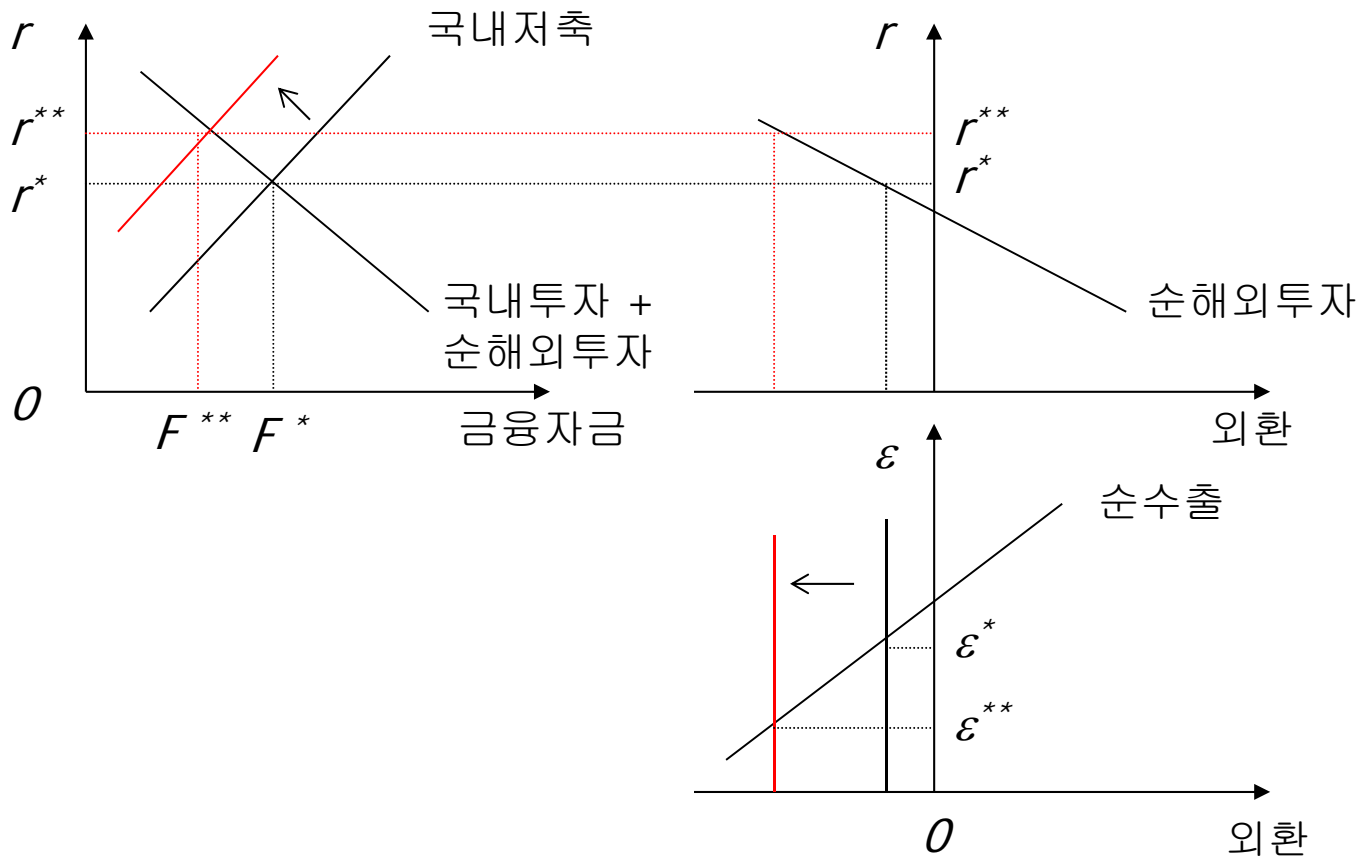
- 장기경제성장은 (노동)생산성의 장기적인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다.
 - 실물자본의 축적
 - 인적자본의 축적
 - 기술의 개발 및 적용
- 장기적으로 화폐는 중립적이다.
 $M \cdot V = P \cdot Y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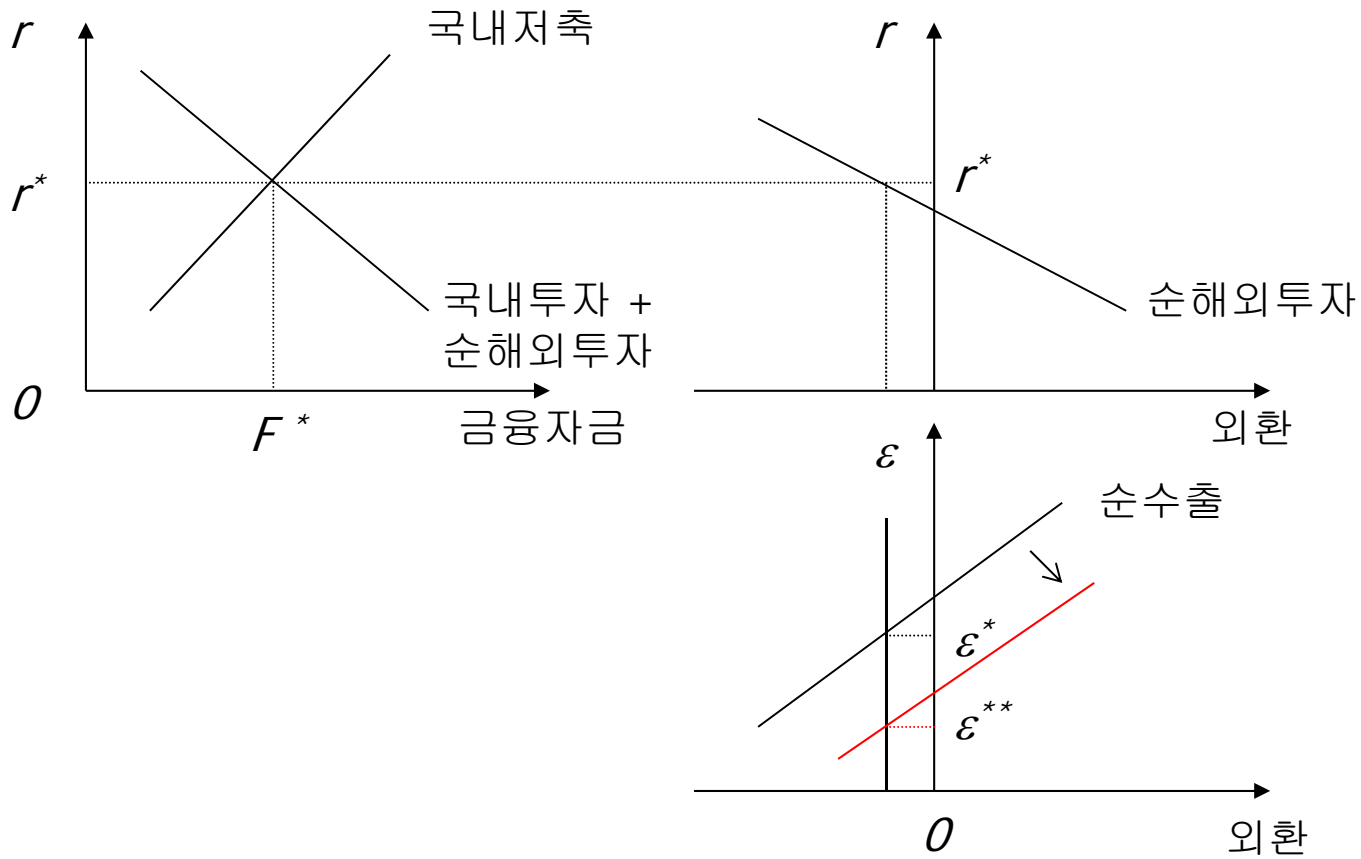
장기분석 (기본모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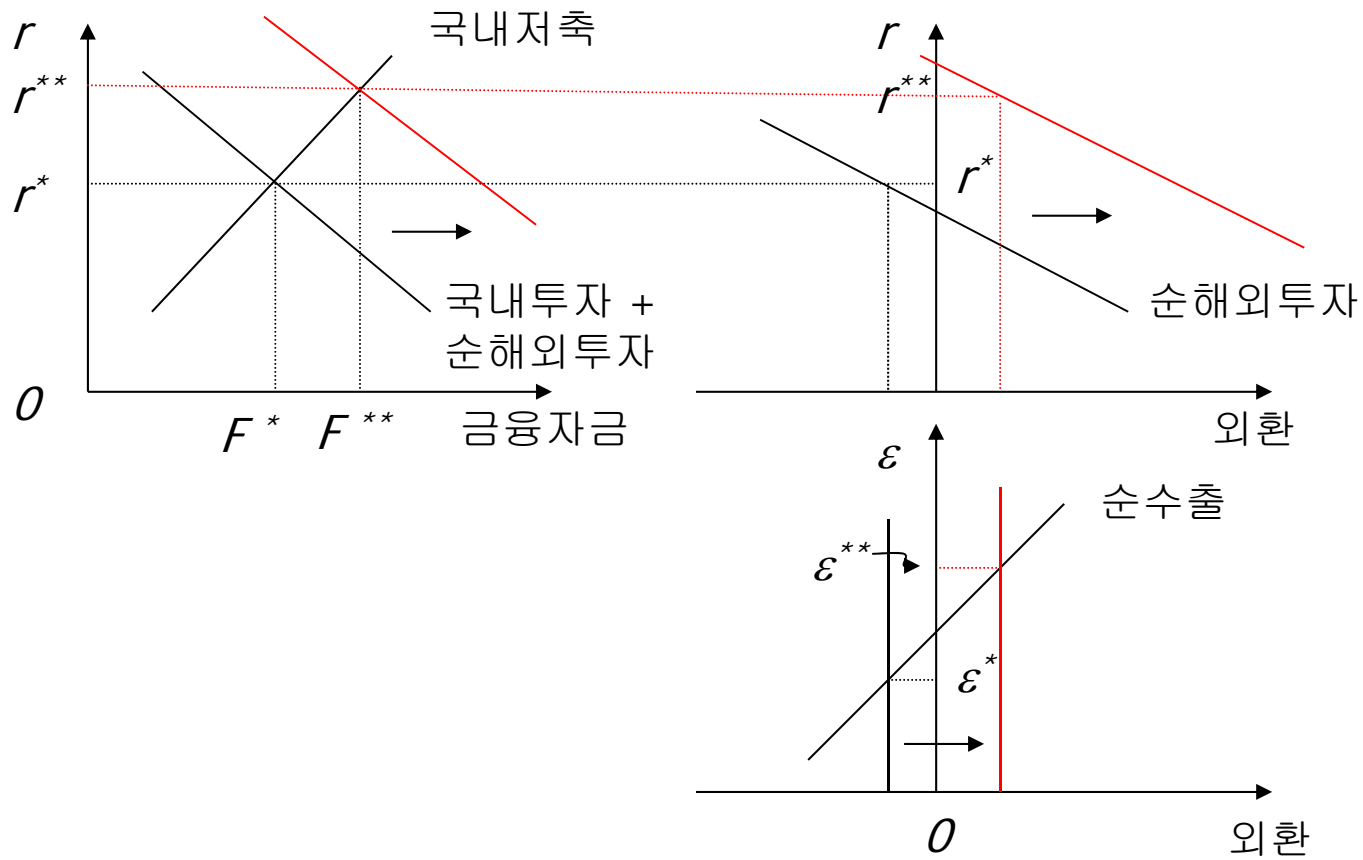
장기분석 (정부의 재정적자의 효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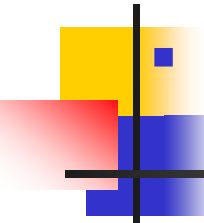


장기분석 (보호무역정책의 효과)



장기분석 (외국인의 투자자금 회수의 효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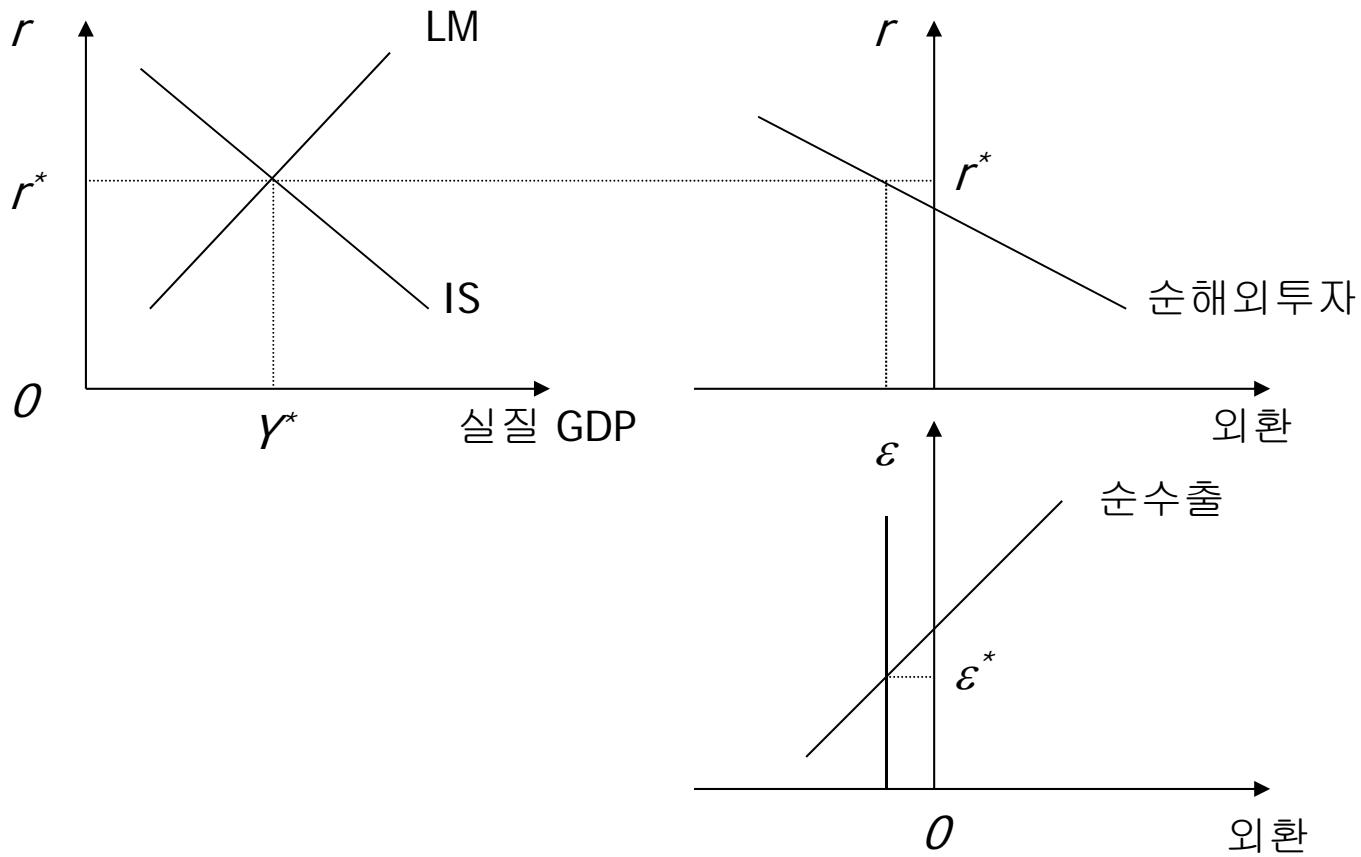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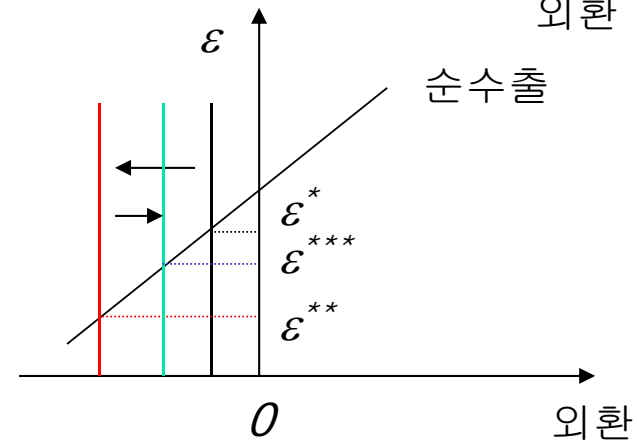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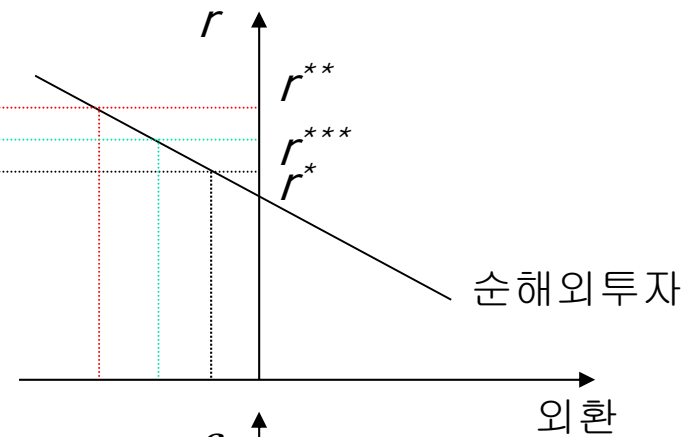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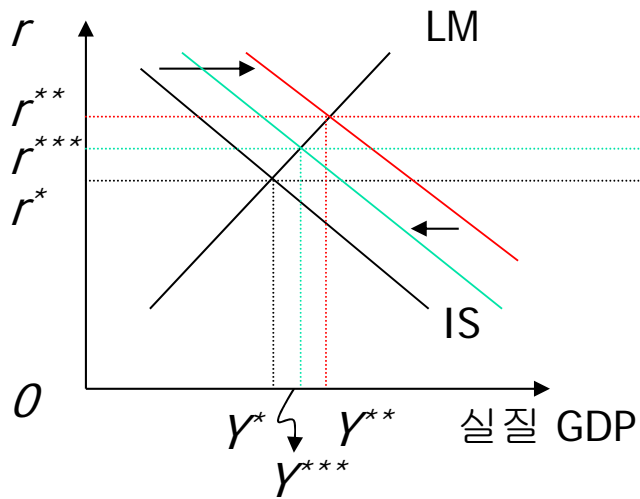
- 단기분석 (용어해설 1)

- IS: 물가가 고정인 상황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실질이자율과 소득수준의 결합점들을 이어 놓은 선
 - $Y = C(Y, r) + I(r) + G + NX(e)$
 -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:
 - 소비성향, 완성한 기업가정신, 신기술보급, 정부의 재정책,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
- LM: 물가와 통화공급량이 고정인 상황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실질이자율과 소득수준의 결합점들을 이어 놓은 선
 - $M/P = L(Y, r)$: Keynes의 유동성 선호이론
 -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:
 - 통화공급량, 물가, 금융시스템, 새로운 금융자산의 개발, 유동성에 대한 선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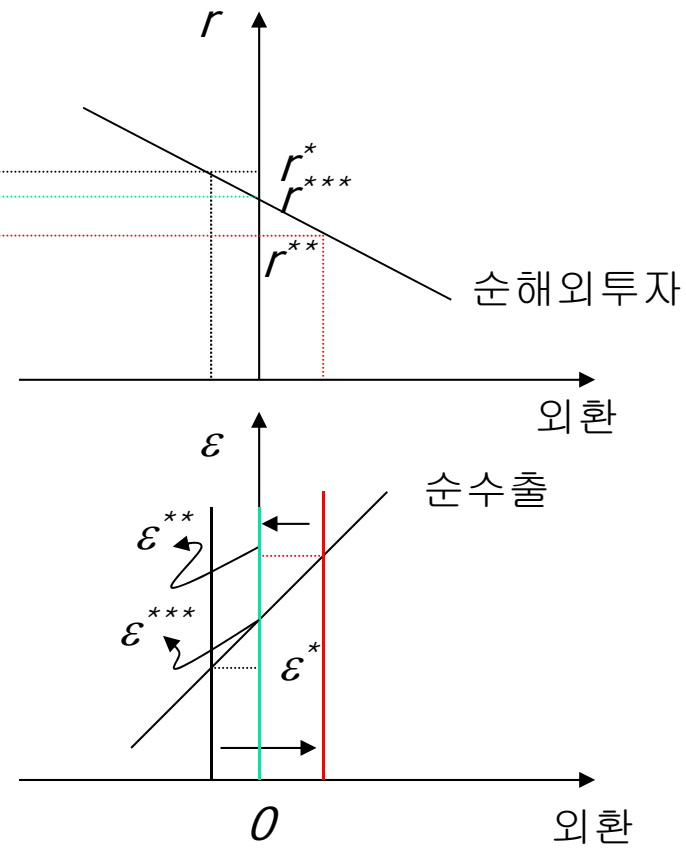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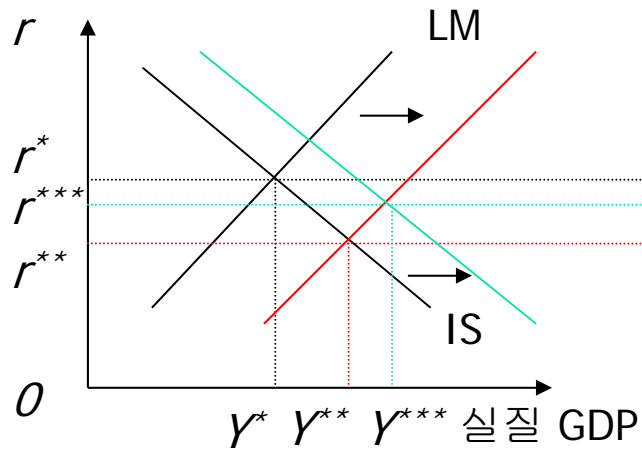
- 단기분석(Mundel-Fleming의 IS-LM 기본모형):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일 때의 기본모형




- 단기분석(Mundel-Fleming의 IS-LM 재정적자의 효과):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일 때



- 단기분석(Mundel-Fleming의 IS-LM 통화량증가의 효과):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일 때





■ 단기분석 (용어해설 2)

■ 총수요 저축 = 소비수요 + 투자수요 + 정부재정수요 + 순수출

■ 물가상승 \Rightarrow 소비, 투자, 순수출 위축 \Rightarrow 총수요 감소

■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:

소비성향, 완성한 기업가정신, 신기술보급, 정부의 재정책,
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, 통화공급량, 금융시스템, 유동성
에 대한 선호도

■ 장기 총공급 (= 잠재 GDP): 완전고용수준에서의 생산량

■ 장기총공급은 물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.

■ 장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:

물적 자본축적, 인적 자본축적, 기술진보, 노동력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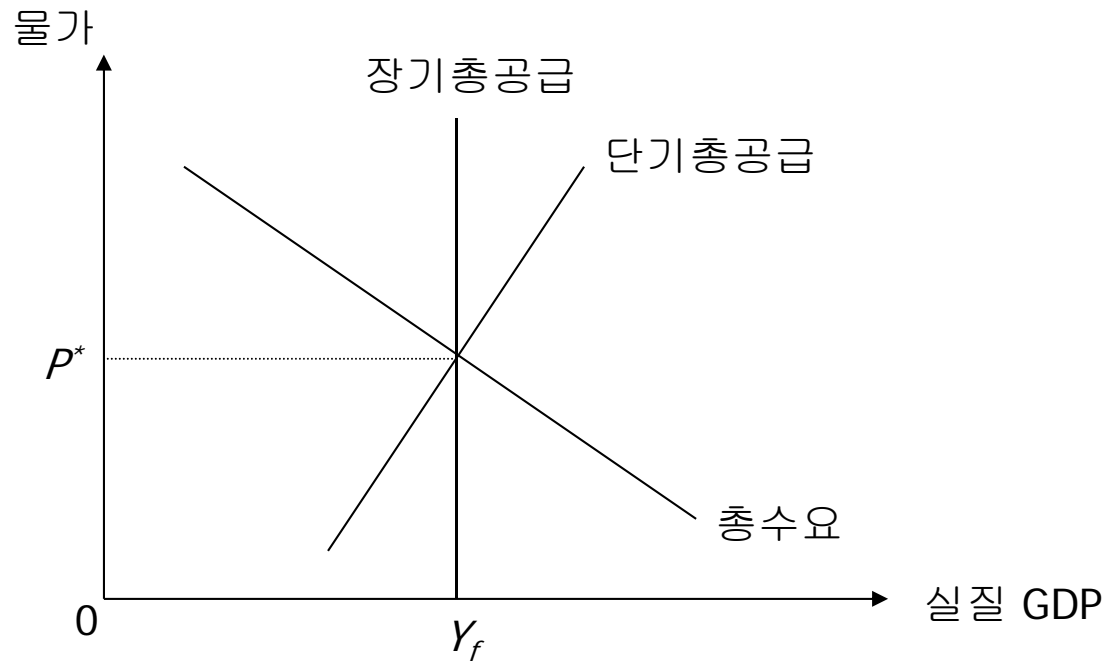
■ 단기 총공급: 단기적으로 생산량은 완전고용수준을 상회하거나 밑돌 수 있다.

■ 물가상승 \Rightarrow 일부 제품의 가격경직성, 임금 경직성, 노동자 또는 생산자들의 정보부족 또는 오해 \Rightarrow 노동고용 증가 \Rightarrow 공급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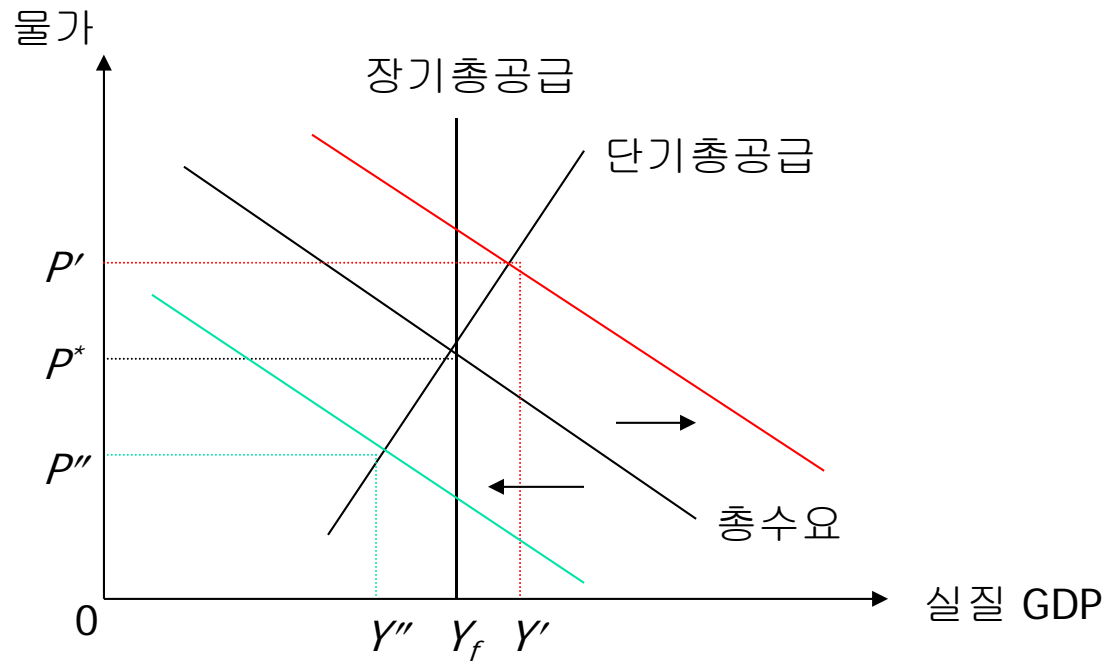
■ 단기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:

원자재 가격, 물가에 대한 예상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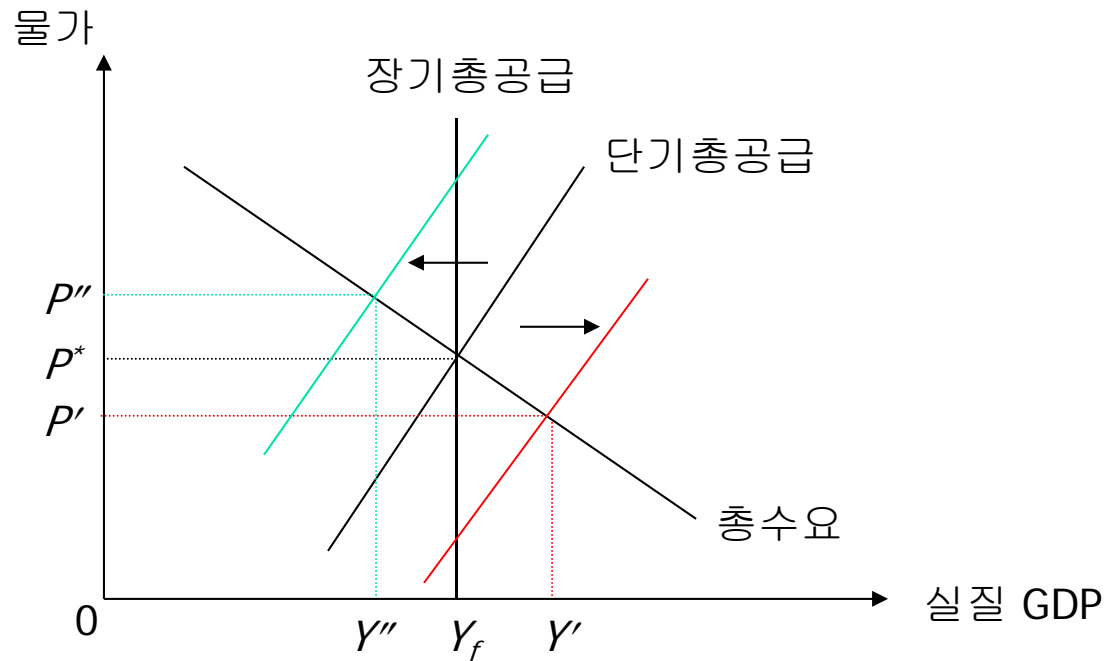
■ 단기분석(총수요 총공급 기본모형):
물가가 부분적으로 경직적일 때의 기본모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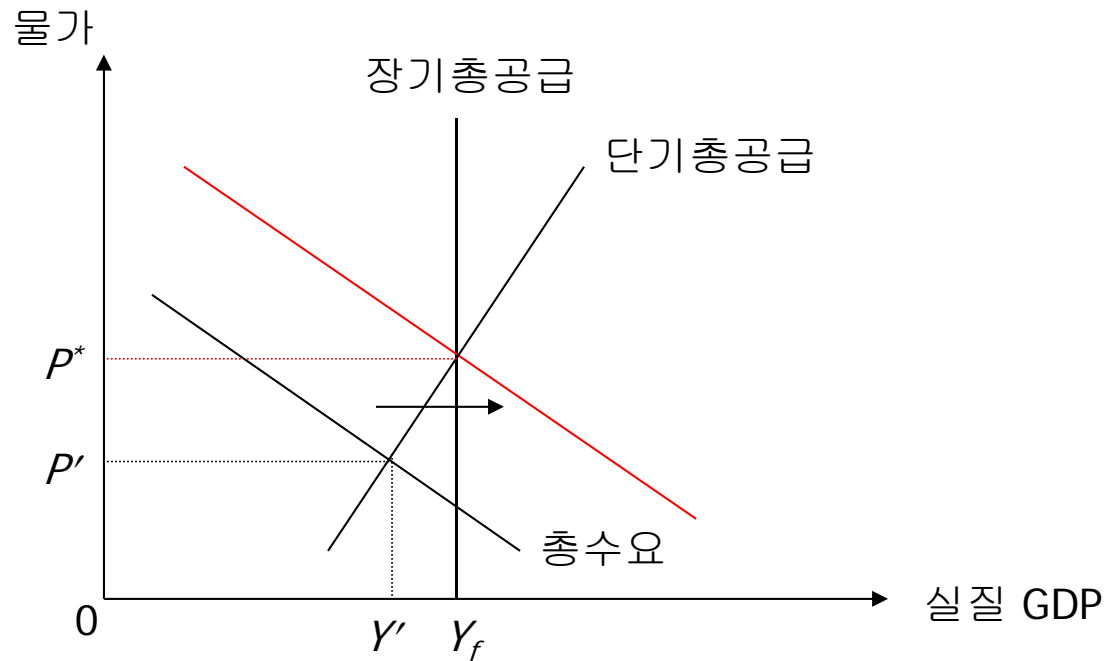
- 단기분석(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의한 경기변동):
물가가 부분적으로 경직적일 때



- 단기분석(단기 총공급곡선의 이동에 의한 경기변동):
물가가 부분적으로 경직적일 때



- 단기분석(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 = 총수요 관리정책):
물가가 부분적으로 경직적일 때



- 단기분석(합리적 기대이론 = 총수요 관리정책 무용론):
물가가 부분적으로 경직적일 때

